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태 훈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한 아 름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

강 태 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한 아 름

# 인 준 서

한아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21세기 전환기 이후,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입국 인원이 2003년~2011년에는 2,000~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점차 줄어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잠정)까지 총 33,658이 입국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중 2,531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약 59%에 달하는 1,490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연도별 재학 현황을 보면 학생들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2013년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항목을 신설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업중단이나 학습 부진, 일탈 행위 등의 모습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되었던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 방향을 제언하

고자 하였다.

**주요어:**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특성,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 일탈 행위

# 목 차

## 논문개요

|                             |           |
|-----------------------------|-----------|
| <b>I. 서론</b> .....          | <b>1</b>  |
| <b>II. 개념적 틀</b> .....      | <b>5</b>  |
| 1. 북한이탈 청소년 .....           | 5         |
| 2. 학교 부적응 .....             | 11        |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습 부진 .....    | 12        |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중단 .....     | 16        |
|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 .....       | 21        |
| 4)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우/교사 관계 ..... | 22        |
| <b>III. 연구 방법</b> .....     | <b>24</b> |
| 1. 연구 대상의 설정 .....          | 24        |
| 2. 분석 방법 .....              | 25        |
| 1) 주제 분류 기준 .....           | 25        |
| 2) 연구방법상의 분석체계 .....        | 26        |
| 3) 분석체계모형도 .....            | 26        |
| <b>IV. 내용 분석 결과</b> .....   | <b>28</b> |
| 1. 발표 연도 .....              | 28        |
| 2. 학술지 .....                | 29        |

|                                 |    |
|---------------------------------|----|
| 3. 연구 방법 .....                  | 31 |
| 4. 연구 주제 .....                  | 33 |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 .....    | 33 |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해소 방안 ..... | 35 |
| <br>                            |    |
| V. 결론 및 논의 .....                | 40 |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   |    |
|---|----|
| <표 II-1>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천 .....                           | 6  |
| <표 II-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국유형 및 관계 부처별 용어사용<br>현황 .....    | 8  |
| <표 II-3>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용어별 대상 및<br>연령범위 ..... | 9  |
| <표 II-4> 다문화 유형별 성취수준 비율과 척도점수 평균 .....               | 13 |
| <표 II-5> 2010년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중단 사유 .....                | 16 |
| <표 II-6>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00~'10) .....               | 17 |
| <표 III-1> 주제구분 .....                                  | 25 |
| <표 IV-1> 연도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발표 논문 수<br>.....      | 28 |
| <표 IV-2> 학술지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 ...             | 30 |
| <표 IV-3> 연구 방법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br>.....      | 31 |
| <표 IV-4> 부적응 양상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br>.....     | 33 |
| <표 IV-5> 부적응 해소방안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br>논문 수 .....   | 35 |



## I. 서 론

21세기 전환기 이후,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입국 인원이 2003년~2011년에는 2,000~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점차 줄어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잠정)까지 총 33,658이 입국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중 2,531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약 59%에 달하는 1,490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sup>1)</sup>.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연도별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538명, 2018년 2,538명, 2019년 2,531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2013년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항목을 신설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이나 학습 부진, 일탈 행위 등의 모습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잦다.

통일부에서 제공한 2019년 탈북학생 교육통계 자료에서 학업중단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 1.0%, 2018년 0.7%,

---

1) 통일부. 2019년 탈북학생 교육통계. 2019.6. 기준

2019년 1.4%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 1.8%, 2018년 2.9%, 2019년 3.2%로,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 4.3%, 2018년 4.8%, 2019년 4.7%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일반학생의 0.94%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통일부, 2016). 또한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학업중단을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다.

2010년 교육부에서 제공한 2010 탈북학생 교육 현황 자료를 보면, ‘수학능력 부족에서 오는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8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공부, 학교, 성적 문제가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라는 응답이 62.8%, 학교 공부 중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는 응답이 63.7%로 높게 나온 조사 결과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수학, 과학 과목을 비롯한 여러 과목에서 학업 특성이 낮은 것을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고상숙, 2013; 김현경, 2014; 연보라, 김홍찬, 2012; 조윤동, 강은주, 고희경, 2013)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국이나 제 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을 하고, 입국 후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은 후에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초기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 재원기간 동안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심의를 거쳐 남한의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는데 북한이탈 과정에서 생긴 교육 공백으로 대부분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년의 남한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백인옥(2019)은 “북한과 남한의 교육제도의 차이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에 어려움을 더하고, 학력심의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학년을 배정하지만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학력차이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학교 적응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왔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뿐 아니라 남북 간 교육과정 및 내용의 차이, 교육 공백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남한의 학생들과의 학력 차이로 또래문화에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학교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학비 지원,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경제적, 학업적 지원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출생지, 입국유형 등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이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의 적용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배경을 무시한 채 기존의 지원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저마다의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과 난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는 남한의 안정적인 이주민 정책의 수립과 그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며, 이는 향후 외국인, 이주민, 난민 지원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학교 적응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북한이탈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향후 정책 및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선행 연구 문제: 연구 시기, 빈도, 주제 및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등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청소년 학교 부적응 해소 방안 제시: 선행연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II. 개념적 틀

### 1.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2조 1항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지칭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은 채 탈북자, 새터민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들은 ‘탈북자’라는 말에는 “폭압적인 북한정권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수용소와 같은 그 땅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그 본질적 의미를 은폐하고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소멸시킨다는 주장(윤일건, 2007)도 나왔다. 이상의 논의와 용어의 변천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1>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천

| 시기                  | 용어   | 논의   |
|---------------------|--|--|
| 1993년<br>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순자(歸順者)</li> <li>■ 귀순용사(歸順勇士)</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거나 순종해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적대적 상황에서 개인이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이동한 사람.</li> <li>■ 당시에는 북한을 떠나는 주된 원인이 정치적인 이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li> </ul>         |
| 1994년<br>~<br>199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li> <li>■ 귀순북한동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늘어남. 이때부터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li> <li>■ '탈북자'는 현재까지도 북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중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임.</li> </ul> |
| 1997년<br>~<br>200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li> <li>■ 북한이탈주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음.</li> <li>■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li> </ul>  |
| 2005년<br>~<br>200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터민</li> <li>■ 북한이탈주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순화 용어인 '새터민(-民)'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음.</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담긴 뜻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있는 탈북자들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포괄하는 ‘탈북자’라는 용어에 비해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를 꺼리기도 하였음.</li> </ul> |
| 2008년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li> <li>■ 북한이탈주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단체들로부터 “용어의 사용과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통일부는 2008년 11월 ‘새터민이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li> </ul>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주민이다. 그러나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중국과 몽골,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 3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 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며 남한에서 출생하는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개념 또한 확장되었다.

동법 제 24조 2항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 ‘탈북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그 대상으로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 뿐 아니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연령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2항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와 대상 및 연령범위, 법적 근거 등은

출생국, 입국 유형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다른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국유형 및 관계 부처별 용어사용 현황(이기영 외, 2014, 59p)

| 출생국                | 입국유형                            | 관계 부처별 용어사용                    |                         |                              |
|--------------------|---------------------------------|--------------------------------|-------------------------|------------------------------|
|                    |                                 | 통일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 북한<br>출생           | 가족 동반입국 또는<br>가족 선입국 후<br>단독 입국 | 탈북청소년                          | 탈북학생 또는<br>탈북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br>또는<br>다문화가정<br>자녀 |
|                    | 단독입국                            | 무연고<br>탈북청소년                   |                         |                              |
| 중국 등<br>제 3국<br>출생 | 가족 동반입국                         | 중국 등 제3국<br>출생<br>북한이탈주민<br>자녀 |                         |                              |
|                    | 초청, 안내인을 통한<br>입국               |                                |                         |                              |
| 남한<br>출생           | 해당 없음                           | 남한출생<br>북한이탈주민<br>자녀           | 북한이탈주민<br>등 다문화가정<br>자녀 | 다문화가정<br>자녀                  |

<표 II-3>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용어별 대상 및 연령범위(윤상석, 2013, 60p)

| 용어                     | 설명   | 대상 및 연령범위   | 비고                                    |
|------------------------|--|---|---------------------------------------|
| 탈북청소년<br>(북한이탈<br>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컫는 용어 |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 38조의 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 일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br>정착지원법 시행령 제 | 정착지원법 제 24조의 2에 ‘탈북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     |
| 새터민<br>(새터민<br>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와 일반 적으로 사용하기에 길고 복잡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어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임.                              | 47조의 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br>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할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2005년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용어 중 선정, 근거법령 없음. |
| 탈북학생                   | 탈북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을 일컫   | 비보호청소년을 포함해 통상 학령기(만 6세~  | 근거법령 없음.<br>(교육부에서 주                  |

|                              |  |   |                                   |
|------------------------------|--|---|-----------------------------------|
|                              | 는 용어   |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의미함.               | 로 사용)                             |
| 비보호청소년<br>(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통상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 결정이 안된 청소년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컬음.                 | 탈북학생으로 분류할 때는 학령기(만 6세~18세)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분류할 때는 9세~24세 | 근거법령 없음.<br>(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주로 사용) |
| 이주배경 청소년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탈북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24세 이하를 의미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

이처럼 북한이탈 청소년의 용어는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어와 그 정의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해가 부족한 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을 잘못된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과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탈북자’, ‘새터민’ 등의 용어는 1차 자료에서 해당 용어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나온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연령의 범위 또한 법률에 따라 24세 이하로 보고자 한다.

## 2. 학교 부적응

학교 부적응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실패하여 부조화를 겪는 현상으로(김동배, 권중돈, 1988; 이경상 외, 2005)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 특성은 학업과 학교 규칙 준수,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생활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김종범, 2009; 박정주, 2011). 또한 학업중단이나 일탈 및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남한학교 적응과정에서의 학습에 대해 살펴본 김미숙(2005)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북한이탈학생들이 국어와 수학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북한의 권위주의적이고 주입식 교육체제에서 사회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았다.

이수연(2008)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장애요인은 남·북한의 다른 수업방식 차이와 영어, 수학의 심한 학력차이에서 오는 학업의 어려움, 또래문화의 갈등, 남한 청소년의 편견과 차별,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 등이었다. 보호요인은 개인 내적 보호요인,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개인 내적 보호요인은 적극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사고, 환경적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체제로 파악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는 함께 입국한 부모, 북한이탈 청소년 친구, 학교 친구와 가족, 하나원 교사, 교사, 종교단체 봉사자, 이웃 주민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미(2010)는 남한 청소년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방법을 탐색하였는데, 남한 청소년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는 것이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박영숙(2018)은 남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남한학교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학교 부적응 원인을 새로운 환경에서 느낀 놀라움, 감당하기 어려운 실존적 고통,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학교안팎 지원의 양면성, 끝이 없는 현실의 버거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진정성 있는 접근과 태도, 물질적 지원의 확대, 학업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생활의 지원, 대학진학 정보 지원, 부모 교육 및 멘토 등을 제안하였다.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습 부진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남한의 일반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학학습에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저소득층 학생을 비교하면서 학습부진아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고상숙(2012)의 연구에서 이 두 집단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습득이 부족하였고, 정의와 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의 외래어 사용 등의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오류가 많았다.

조운동, 강은주, 고호경(2013)은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 급별 성취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수학과 성취수준 비율과 척도점수 평균에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학생들이 모든 학교급에서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의 비율이 매우 낮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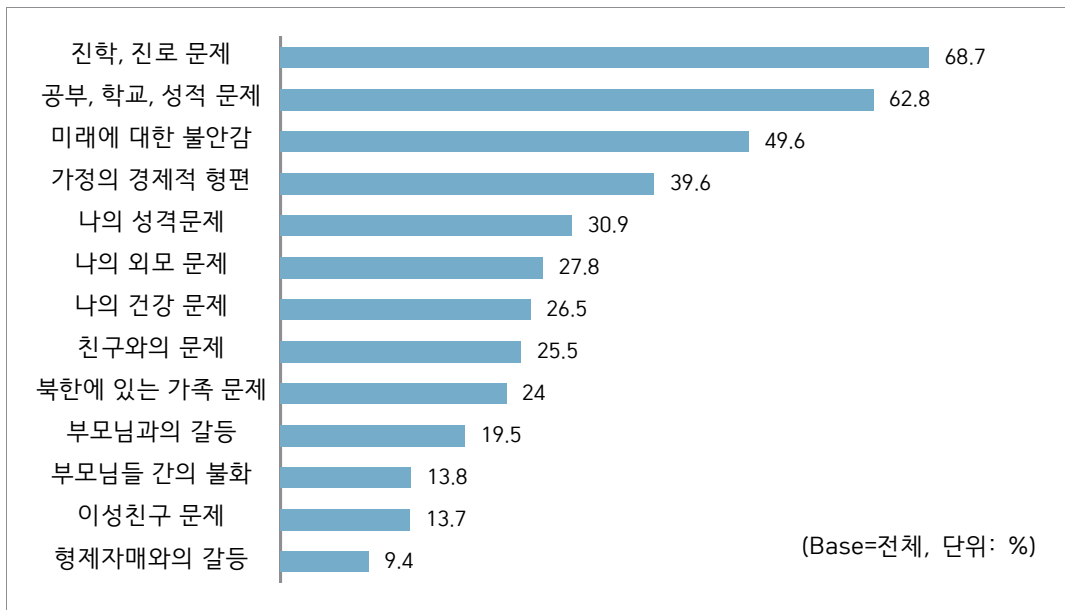
<표 II-4> 다문화 유형별 성취수준 비율과 척도점수 평균(조윤동, 2013, p.187)

|   |      | 성취수준 비율(%) 및 척도점수 평균 |        |        |           |              |
|---|------|----------------------|--------|--------|-----------|--------------|
|   |      | 전체                   | 국제결혼   |        | 외국인<br>가정 | 북한이탈주민<br>가정 |
|   |      |                      | 국내출생   | 중도입국   |           |              |
| 중 | 우수학력 | 20.50                | 10.14  | 2.38   | 2.00      | 2.35         |
|   | 보통학력 | 43.94                | 40.49  | 26.19  | 34.00     | 29.41        |
|   | 기초학력 | 31.55                | 44.97  | 64.29  | 58.00     | 58.82        |
|   | 기초미달 | 4.00                 | 4.40   | 7.14   | 6.00      | <b>9.41</b>  |
|   | 평균   | 192.75               | 182.66 | 169.45 | 168.86    | 166.27       |
| 고 | 우수학력 | 17.91                | 8.47   | 0.00   | 9.09      | 0.00         |
|   | 보통학력 | 51.79                | 57.25  | 42.50  | 54.55     | 42.25        |
|   | 기초학력 | 22.48                | 25.99  | 40.00  | 27.27     | 38.03        |
|   | 기초미달 | 7.83                 | 8.29   | 17.50  | 9.09      | <b>19.72</b> |
|   | 평균   | 195.11               | 187.42 | 170.83 | 183.64    | 169.37       |

조윤동, 강은주, 고희경(2013)은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서 다문화·탈북가정 학생들에게 차별기능을 하는 문항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초·중·고등학교 세 학교급에서 8개의 문항이 추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언어 능력, 계산 및 문제 해결 과정의 복잡성, 교육과정의 일치 여부, 문제 상황 등이 차별기능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 능력으로 인한 차별기능은 고상숙(2012)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자료를 활용한 또 다른 연구로, 김현경(2014)은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반 학생과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유형별 과학 성취수준 비율을 비교하였는데, 중도입국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은 우수학력 비율이 5% 이하인데 비해, 기초미달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과학과목의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이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과학과의 전반적인 성취 면에서는 국내출생 학생의 경우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집단 중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으면서 일반 학생과의 격차도 크지 않았지만, 중도입국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의 성취도는 매우 낮고 일반 학생과의 격차 또한 매우 컸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남북 간의 다른 교육체제와 문화, 용어의 차이, 교육 공백 등의 문제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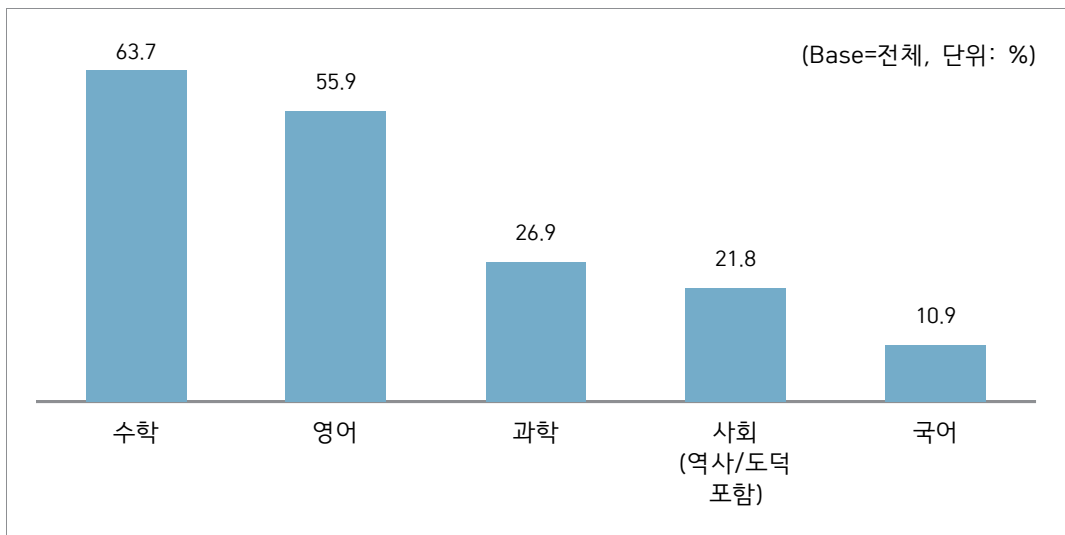
남북하나재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중, 2018년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은 학교생활 부문에서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 62.8%의 비율로 ‘공부, 학교, 성적 문제’를 꼽았다. 특히 학교 공부 중 가장 어려운 과목을 묻는 질문에 수학과라고 답한 학생이 63.7%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영어 55.9%, 과학 26.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의 일반 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점,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해준다.



※ 본 그래프는 '걱정함(매우 걱정함+걱정을 하는 편임)' 응답값 비율을 표시함

※ 2016년의 경우 동일 문항이 없어 비교가 불가함

[그림 II-1]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남북하나재단, 2019, 60p)



[그림 II-2] 가장 어려운 과목(남북하나재단, 2019, 43p)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0 탈북학생 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0년 학업을 중단한 56명의 학생 중 24명(42.9%)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 중 수학능력 부족에서 오는 학교 부적응을 중단 사유로 꼽은 학생의 비율은 10.7%였다.

<표 II-5> 2010년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중단 사유

| 중도탈락 원인                  | 지역 총<br>응답 계 | 사유별<br>비율 |
|--------------------------|--------------|-----------|
| ①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 | 9            | 16.1%     |
| ②수학능력 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      | 6            | 10.7%     |
| ③ ①번과 ②번 이외 사유에 의한 학교부적응 | 9            | 16.1%     |
| ④ 경제적 사정                 | 4            | 7.1%      |
| ⑤ 가사(경제적 사정 이외의 원인),     | 5            | 8.9%      |
| ⑥ 검정고시                   | 6            | 10.7%     |
| ⑦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 0            | 0%        |
| ⑧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서 수학      | 0            | 0%        |
| ⑨ 질병                     | 3            | 5.4%      |
| ⑩ 비행                     | 2            | 3.6%      |
| ⑪ 기타                     | 12           | 21.4%     |
| 합계                       | 56           | 100%      |

출처: 2010 탈북학생 교육 현황, 교육부(2010)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 II-3>과 같다.

<표 II-6>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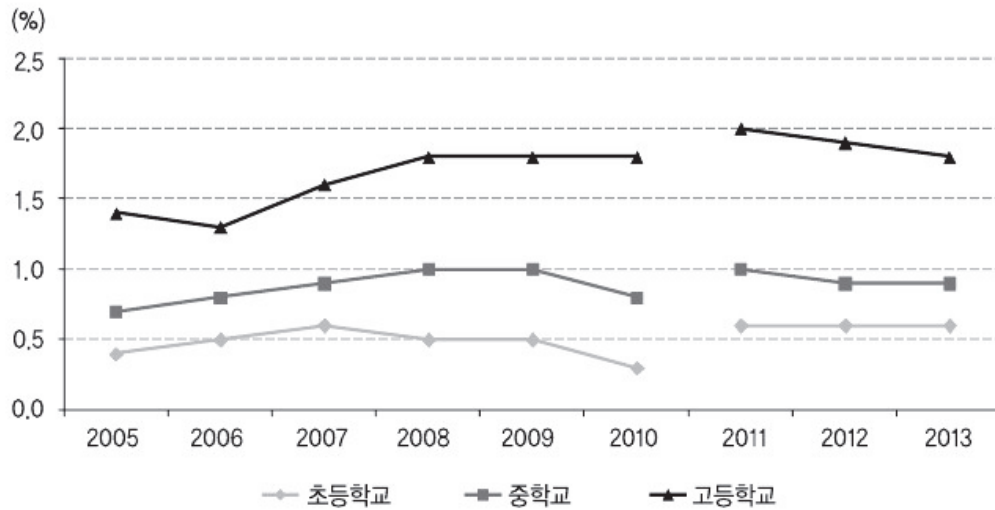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계<br>(비율)     |
|----------------|-----|-----|-----|-----|-----|-----|-----|-----|-----|-----|---------------|
| 부적응<br>(연령)    | 3   | 6   | 5   | 7   | 13  | 7   | 16  | 21  | 8   | 9   | 95<br>(32.2%) |
| 부적응<br>(학습능력)  |     |     |     |     |     |     |     |     | 8   | 6   | 14<br>(4.7%)  |
| 기타<br>부적응      |     |     |     |     |     |     |     |     | 4   | 9   | 13<br>(4.4%)  |
| 장기<br>결석       |     |     | 4   | 2   |     |     |     |     |     |     | 6<br>(2.0%)   |
| 경제적 사정         |     |     |     | 3   |     |     | 2   | 6   | 2   | 4   | 17<br>(5.8%)  |
| 가사             |     |     | 2   |     | 2   | 1   | 8   | 4   | 7   | 5   | 23<br>(7.8%)  |
| 검정<br>고시       | 1   | 1   |     | 1   | 4   | 1   | 2   | 14  | 10  | 6   | 46<br>(15.6%) |
| 미인가<br>교육시설 수합 |     |     |     |     |     |     |     |     | 3   |     | 3<br>(1.0%)   |
| 학력인정<br>평생교육시설 |     |     |     |     |     |     |     |     | 1   |     | 1<br>(0.3%)   |

|    |   |   |    |    |    |    |    |    |    |    |               |
|----|---|---|----|----|----|----|----|----|----|----|---------------|
| 질병 |   |   | 1  |    |    |    |    | 3  | 2  | 3  | 9<br>(3.1%)   |
| 비행 | 1 |   |    |    |    |    |    |    | 1  | 2  | 4<br>(1.4%)   |
| 기타 |   |   |    |    | 5  | 2  | 6  | 26 | 13 | 12 | 64<br>(21.7%) |
| 계  | 5 | 7 | 12 | 13 | 24 | 11 | 34 | 74 | 59 | 56 | 295           |

출처: 2010 탈북학생 교육 현황, 교육부(2010)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은 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도에 학업 부적응 요인을 세분화하면서 연령에 따른 학업 부적응 응답 수가 줄었으나, 연령, 학습 능력, 기타 사유를 포함하면 2007년 학업 부적응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14년 이후의 통계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학업중단 사유가 나와 있지 않고 학업중단율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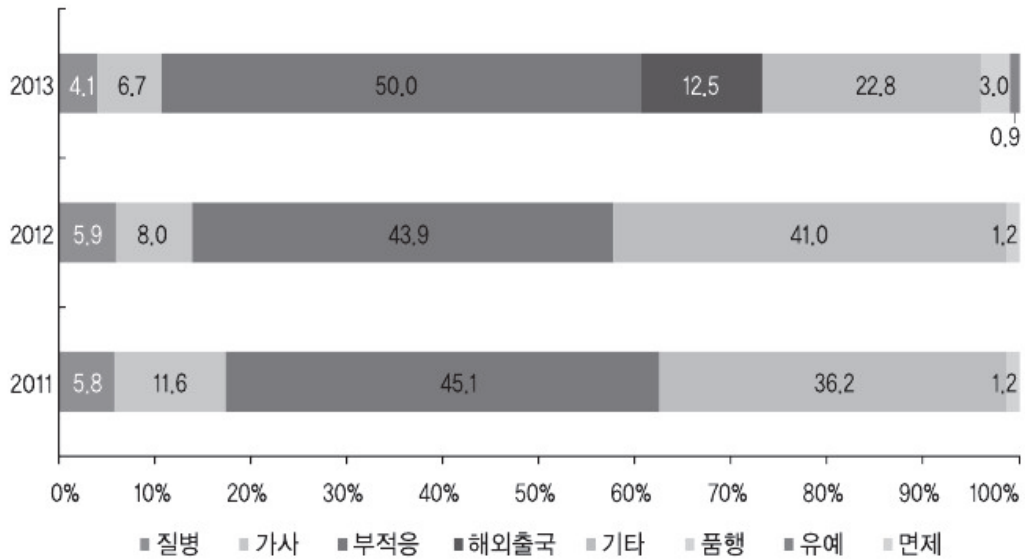
한편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대체로 증가해 왔으나,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2013.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0년 이전과 2011년 이후 조사 기준의 변화로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함.

[그림 II-3] 학제별 학업중단율의 변화(2005-2013)(한국교육개발원, 2013, p123)

학업중단 사유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전체 학업중단자 중 50.0%의 학생이 학교 부적응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 ~ 2013.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 3) 2013년 조사 항목이 개정(자퇴/퇴학 구분 신설, 해외출국 구분 추가)됨에 따라 2013년 이전 분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 등,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게임중독) 등  
 가사 :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 간호 등)  
 부적응 :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해외출국 :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기타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품행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 5) 2011년 ~ 2012년에는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의 기타에 포함됨
- 6) 고등학교에서의 유예, 면제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그림 II-4] 고등학교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자 비율의 변화(2011-2013)(한국교육개발원, 2013, p123)

###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 그리고 입국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하며, 교육 공백과 학업 능력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학력 차이로 인해 대부분 자신보다 어린 남한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또래집단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되면서 비행이나 일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이나 문제행동, 범죄행위 혹은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수가 많지 않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유형을 살펴본 박윤숙(2009)은 연구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일탈행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반발이 컸던 것에 대해 “일탈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지탄받는 문화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응답하라는 요청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이것이 실태조사의 어려움에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숙(2009)은 위의 연구에서 일탈행동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3명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례와 이들을 담당하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일탈행동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친구를 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소극적 일탈행동부터 무단결석이나 적극적 일탈행동 외에도 가출, 절도, 폭력, 차량방화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망의 결핍이 이러한 행위들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하섭(2013)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탐색하였는데, 일탈행위요인을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북한에서 형성된 사고 및 성향, 정체성과 남한의 사회, 문화와의 충돌로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로 이어졌으며, 환경요인으로는 학령 차이와 학업 성취 차이로 인한 따돌림 피해가 학교 부적응과 중도탈락, 일탈행위로 이어지며 보복을 위해 비행집단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아영아(2019)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특성과 공격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도 같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모지지 및 친구지지가 그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공격행동, 나아가 비행 및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선제적 개입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완화 및 해소를 통해 그들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우/교사 관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부분 북한이탈 과정에서 교육 공백이 생겨, 자신보다 어린 나이의 남한 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보내게 된다. 학력심의위원회에서는 학령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학년을 배정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에 나이 차이까지 더해져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남한 학생들의 편견도 원만한 또래 관계 유지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과 태도에 상처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등(백인옥, 2020; 송진영, 배미경, 2015; 이수연, 2008) 차별과 소외를 느끼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투리를 따라하며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다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등 불안정한 심리적 고통으로 학교와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치관의 차이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남한 학생들의 개인주의적인 언행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갈등을 느끼거나,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감정처리가 미숙하여 힘의 우월성을 행동으로 옮기는(심양섭, 김현주, 2015; 정순미, 2010) 것이 원인이 되어 남한의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무관심 혹은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사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놀림, 괴롭힘 등이 우려되어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교사로 인해 자신의 출신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당혹감과 불쾌감, 거부감이 보이기도 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되었던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연구에 대한 문헌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검색하여 최근 연구들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국회도서관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용어 이외에 탈북학생, 북한이탈학생 등의 키워드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적응',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성취'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특성', '북한이탈 청소년 일탈', '북한이탈 청소년 범죄',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 행동', '탈북 학생 학교 적응', '탈북 학생 학업 성취' '탈북 학생 학업 특성', '탈북 학생 일탈', '탈북 학생 범죄', '탈북 학생 문제 행동', '새터민 학생 학교 적응', '새터민 학생 학업 성취' '새터민 학생 학업 특성', '새터민 학생 일탈', '새터민 학생 범죄', '새터민 학생 문제 행동'의 검색어로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그 중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논문 중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 뿐 아니라 이를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둘째, 북한이탈대학생은 25세 이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4세 이하를 규정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셋째, 다문화 가정 출신자에 대한 연구들 중 그 대상자가 북한이탈 청소년

년일 경우를 포함하였다.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 총 34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 방법

최종 선정된 논문은 연구주제에 따라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시기와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제 및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아래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논문을 분류할 때 하나의 연구가 복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복수 영역에 모두 포함시켰다.

### 1) 주제 분류 기준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학교 부적응 양상과 부적응 해소 방안으로 상위주제영역을 2개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각 상위주제영역별로 관련된 하위주제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표 III-1> 주제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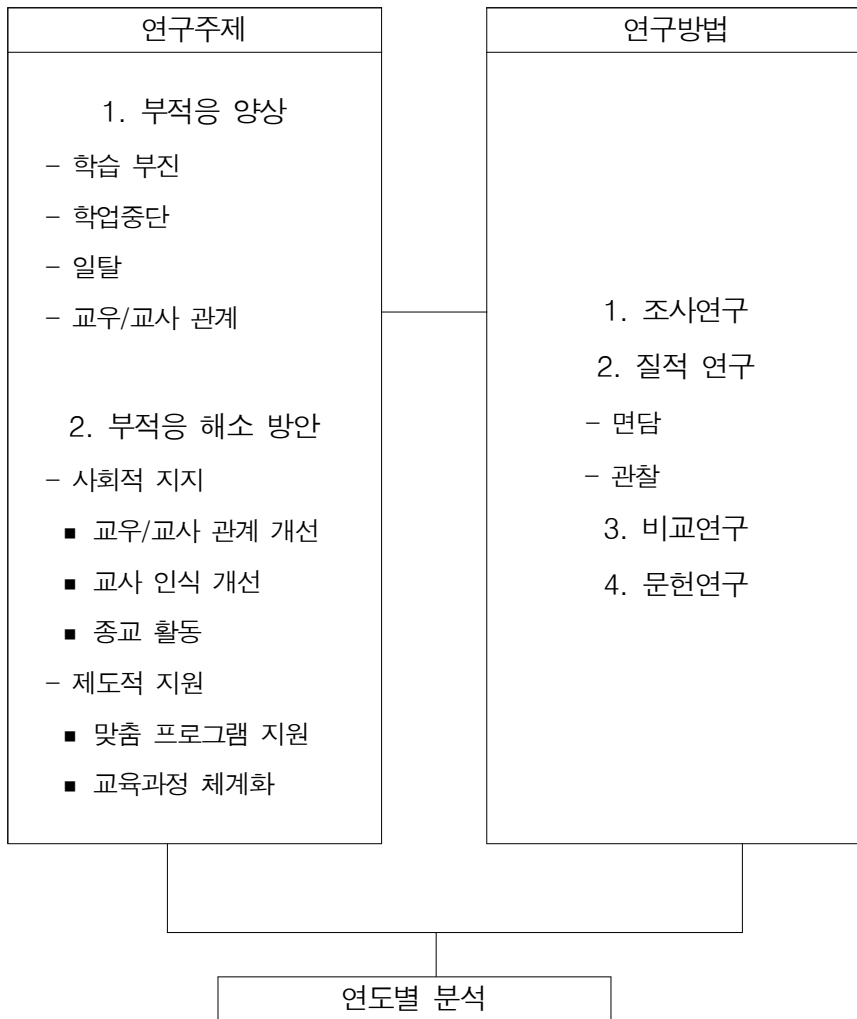
|       | 주제 영역   |  |
|-------|---|--|
|       | 부적응 양상  | 부적응 해소방안   |
| 주제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부진</li> <li>- 학업중단</li> <li>- 일탈</li> <li>- 교우/교사 관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지지</li> <li>- 제도적 지원</li> <li>- 교우/교사 관계 개선</li> <li>- 교사 인식 및 교육과정 개선</li> </ul> |

## 2) 연구방법상의 분석체계

연구방법상의 분석체계는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조사연구, 질적 연구, 개발연구로 구성하였으며, 이때 질적 연구는 면담, 관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한 것을 포함하였다.

## 3) 분석체계모형도

자료의 분석은 앞서 작성한 주제와 연구방법 분류 체계를 근거로 하였으며, 김길자(1995)의 분석체계모형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체계모형도’[그림Ⅲ-1]을 만들어 각각의 분석 항목별로 분석체계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III-1] 분석체계모형도

연구내용상의 동향은 연구주제별로 구분하여 연대별, 주제별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상의 동향은 연구방법별로 구분하여 다시 연대별, 주제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 IV. 내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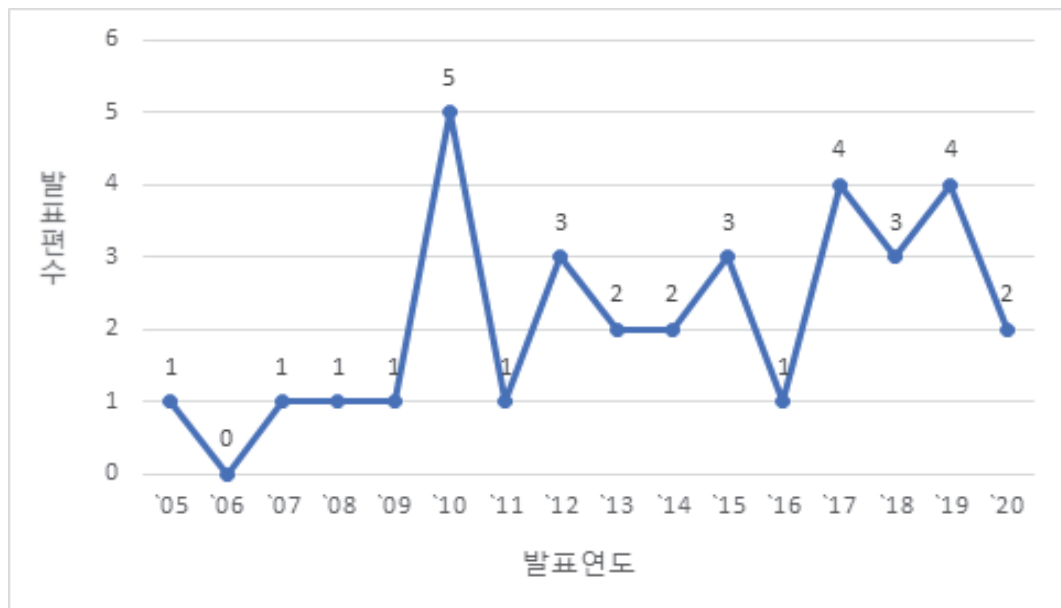
### 1. 발표연도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하여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표 IV-1>과 같다.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가 등재(후보) 학술지에 200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까지 진행된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의 수는 총 34편으로 그 수는 많지 않다.

<표 IV-1> 연도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발표 논문 수

| 발표연도         | 발표편수(%)  | 발표연도  | 발표편수(%) | 발표연도  | 발표편수(%)        |
|--------------|----------|-------|---------|-------|----------------|
| 2005년        | 1(2.94)  | 2011년 | 1(2.94) | 2017년 | 4(11.76)       |
| 2006년        | 0(0.00)  | 2012년 | 3(8.82) | 2018년 | 3(8.82)        |
| 2007년        | 1(2.94)  | 2013년 | 2(5.88) | 2019년 | 4(11.76)       |
| 2008년        | 1(2.94)  | 2014년 | 2(5.88) | 2020년 | 2(5.88)        |
| 2009년        | 1(2.94)  | 2015년 | 3(8.82) |       |                |
| 2010년        | 5(14.70) | 2016년 | 1(2.94) |       |                |
| <b>합계(%)</b> |          |       |         |       | <b>34(100)</b> |

아래 [그림 IV-1]을 통해 각 연도별 발표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 혹은 감소의 추세는 찾아볼 수 없고, 수도 매우 적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연도별 발표편수의 변화

## 2. 학술지

학술지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이 발표된 등재(후보)학술지는 총 28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이 북한이탈 청소년이

라는 것과 학교 부적응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만큼 교육학과 통일 관련 학술지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IV-2> 학술지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가나다순)

| 분석대상(학술지 28개) |    |               |    |
|---------------|----|---------------|----|
| 학술지           | 편수 | 학술지           | 편수 |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1  |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1  |
| 교육사회학연구       | 2  | 평화문제연구소       | 2  |
| 교육연구논총        | 1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2  |
| 교육인류학연구       | 1  | 학습장애연구        | 1  |
| 대한무용학회        | 1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 1  |
| 대한스트레스학회      | 1  | 한국사회복지        | 1  |
| 대한화학회         | 1  | 한국사회역사학회      | 1  |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1  | 한국심리학회지       | 1  |
| 북한학회          | 2  | 한국윤리교육학회      | 1  |
| 아시아교정포럼       | 1  | 한국청소년연구       | 1  |
| 인간연구          | 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1  | 한국초등교육학회      | 1  |
| 청소년학연구        | 3  | 한국통일교육학회      | 1  |
| 초등교육연구        | 1  | 한국학교수학회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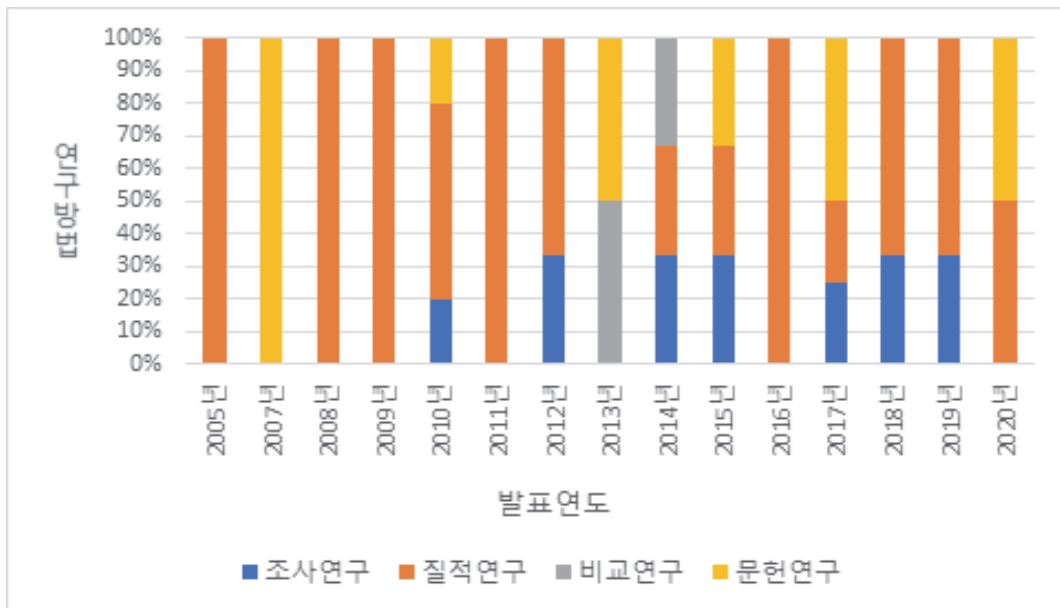
### 3. 연구 방법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은 <표 IV-3>와 같다.

<표 IV-3> 연구 방법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

| 연구 방법 | 조사연구     | 질적 연구     | 비교연구    | 문헌연구     |
|-------|----------|-----------|---------|----------|
| 편수(%) | 7(20.59) | 18(52.49) | 2(5.88) | 7(20.59) |

연구 방법은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포함한 질적 연구가 18편(52.49%)로 가장 많았고, 조사연구 7편(20.59%), 문헌연구 7편(20.59%), 비교연구 2편(5.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V-2] 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연도와 상관없이 대부분 관찰과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질적 연구방법과 1, 2차 문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남한 학생들과의 학업 성취도 비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학교 적응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 학교 중도탈락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방침이나 학생회의 결정으로 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연구 주제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가 어떤 주제로 연구되었는지 앞서 제시한 주제구분 표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 1)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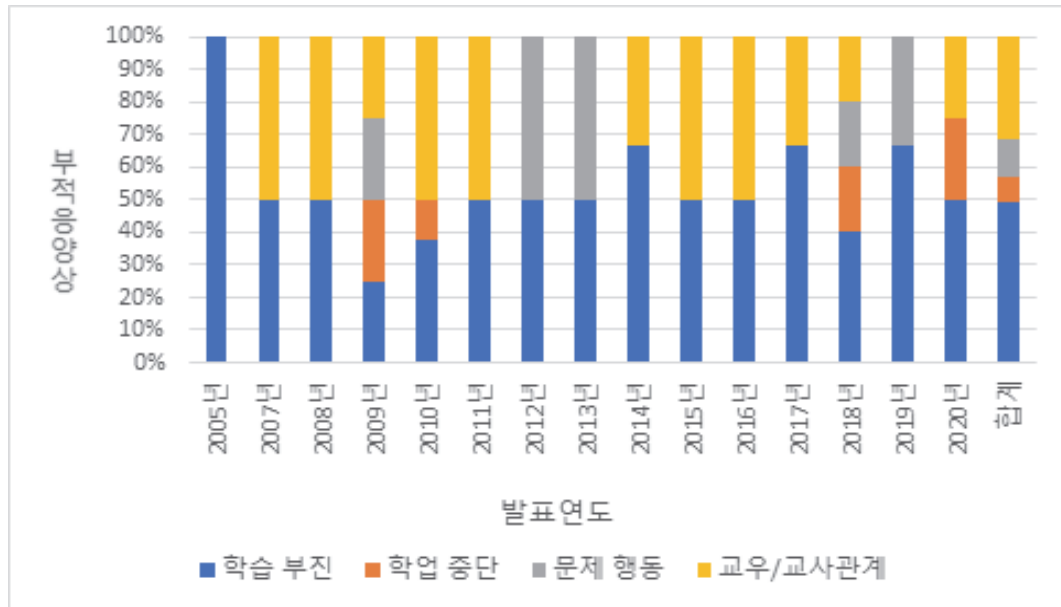
먼저 부적응 양상별로 나타난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는 학습 부진이 25편(49.02%)로 가장 많았고 교우/교사 관계의 어려움 16편(31.37%), 문제 행동 6편(11.76%), 학업중단 4편(7.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부적응 양상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

|       | 주제 영역    |           |
|-------|----------|-----------|
|       | 부적응 양상   |           |
| 주제 항목 | 주제       | 편수(%)     |
|       | 학습 부진    | 25(49.02) |
|       | 학업중단     | 4(7.84)   |
|       | 일탈       | 6(11.76)  |
|       | 교우/교사 관계 | 16(31.37) |

아래의 [그림 IV-3]을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 중 학습 부진에 대한 연구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습 부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 연도별 연구된 부적응 양상

학습 부진의 경우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학습 용어의 차이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이 많았으며, 교우/교사 관계 중, 교우 관계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출신과 학력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소외·차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또래 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남한 학생들과의 교류를 어려워하였다. 교사 관계는 교사의 무관심, 또는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껴 교사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탈과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었는데, 일탈의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행, 일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시 일탈경험에 대한 문항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도 어려운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역시 학업중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중단 사유에 대한 항목이 사라져 관련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해소 방안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자가 제시한 해소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한 부적응 해소 방안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부적응 해소 방안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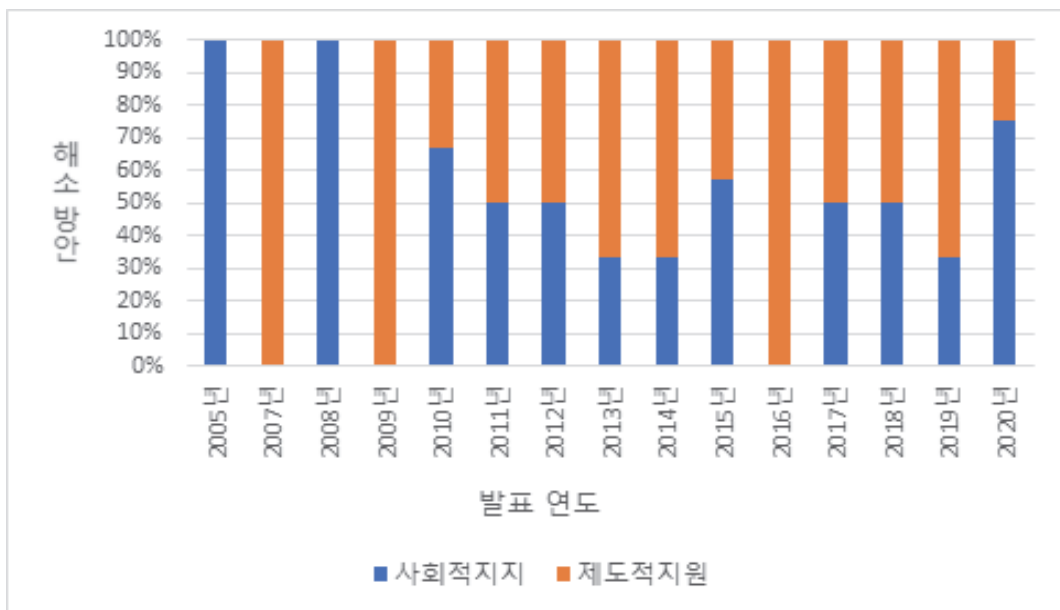
<표 IV-5> 부적응 해소방안별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논문 수

|          | 주제 영역     |             |           |
|----------|-----------|-------------|-----------|
|          | 부적응 해소 방안 |             |           |
| 주제 항목    | 주제        |             | 편수(%)     |
|          | 사회적 지지    | 교우/교사 관계 개선 | 28(49.13) |
|          |           | 교사 인식 개선    |           |
|          |           | 종교 활동       |           |
|          | 제도적 지원    | 맞춤 프로그램 지원  | 29(50.87) |
| 교육과정 체계화 |           |             |           |

먼저 사회적 지지를 통한 부적응 해소 방안에는 교우/교사관계의 개선, 교사 인식 개선, 종교 활동을 포함하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한 부적응 해소 방

안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학습 지원, 교육과정 체계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두 범주의 비율이 사회적 지지 49.13%, 제도적 지원 50.8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IV-4]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해소 방안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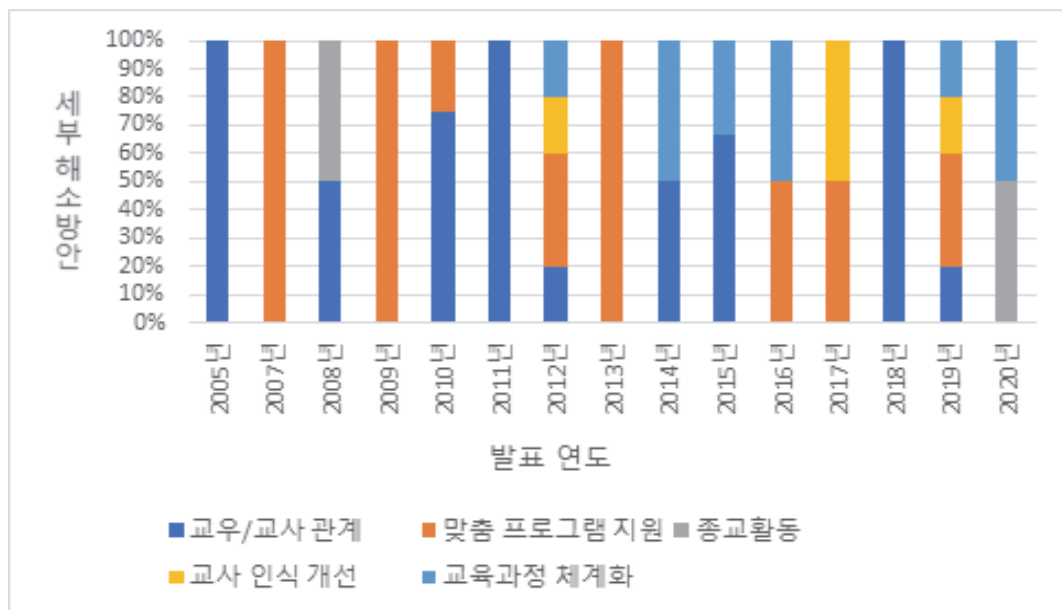


[그림 IV-4] 연도별 제시된 부적응 해소 방안

교우/교사 관계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 형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며 제시가 되고 있다.

각 해소 방안 세부 내용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 [그림 IV-5]를 살펴보면,

‘교우/교사 관계 개선’과 ‘맞춤 프로그램 지원’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 2014년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사 인식 개선을 통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각각의 필요성과 방법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5] 연도별 제시된 부적응 해소 방안(세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의 흐름을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유형, 다양한 배경 그리고 각 학교 환경에 따라 지원정책들이 변화해야 한다(박윤숙, 2009; 신미영, 김병수, 2014; 이한나, 2010; 이항규, 2007)는 연구

들과 함께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정책들도 제시되었다. 심양섭, 김현주(2015)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긴밀히 연결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들었는데,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관 등을 통한 국가적 교육지원 정책을 강조한 고상숙(2013), 김현철, 박혜랑(2018)의 연구들과 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과정과 학업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정책(강구섭, 2018; 노은희, 오인수, 2017; 아영아, 2019), 그리고 학업 중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었다(박윤숙, 2009).

교우/교사 관계로 인한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신미영, 김병수(2014)는 교사관계, 또래관계 등의 학교요인은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는데, 남한 학생들의 도움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김미숙, 2005; 심양섭, 김현주, 2015; 이부미, 2012). 이는 또래 관계 지지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순미(2010)와 김애진, 정원철(2011)이 제시하는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 간의 멘토링 활동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우 관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는 교우 관계보다는 교사 관계를 통한 학교 부적응 해소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또는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부담감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지지와 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제언하였다(박영숙, 2019; 신미영, 김병수, 2014; 심양섭, 김현주, 2015)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사의 역할 재고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

년을 지도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석주, 2017)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역차별로 느끼는 교사도 있는 만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배경적 특성, 학업 특성 등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그 해소 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및 연구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 관련 학술지 논문 34편을 선정하여 내용분석법에 따라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가 등재(후보) 학술지에 200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논문이 총 28개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과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는 학습 부진에 연구에 비하면 그 수가 굉장히 적었다. 학교 부적응이 학습부진, 학업중단, 일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많았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학업중단사유, 일탈이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 부적응 해소방안은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균형 있게 제시되었는데, 그 중 2014년 이후부터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사 인식 개선을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출생국, 입국 유형에 따라 사회환경적 요인과 보호자 요인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한 채 기존의 지원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때문에 그들의 배경과 특성에 맞는 제도적 지원, 사회적 지지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원하는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의 성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생활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여 정보를 수합하고, 교육부는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탈북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담당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간 활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통일과 그 정의, 연령 범위에 대한 합의를 제안한다. 현재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각 기관별로 지칭하는 용어와 정의, 연령 범위가 서로 달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통일부와 교육부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에서는 연령 범위가 서로 달라 정확한 통계자료 분석과 해석, 조사기관별 자료의 호환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용어를 통일하고 정의, 연령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구축하여 개인의 배경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 역량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그동안 선행되어온 연구들에게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특성과 기초 학력 등에 대한 평가는 모두 남한 학생들에게 맞춰진 기준이었고 이를 통해 문

화, 학습 용어, 교육과정과 내용의 차이가 원인이라는 것은 파악하였지만 정작 북한이탈 청소년의 역량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을 마련할 때에 관련 기관의 연계 구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 개인의 욕구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이나 교육과정의 개선에 앞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들을 잘 나타내고 진단할 수 있는 역량평가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역차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평등, 공평 그리고 공정함에 민감하다. 2019년 말,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 신년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뽑혔다. 이러한 ‘공정 세대’에서 수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지금 당장 자신은 받은 게 없으니 불합리하다고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내 삶과 가장 맞아왔고, 바로 느낄 수 있는 ‘미시적 공정’에 가깝다. 바로 그렇기 윤석주(2017)의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을 나눴던 초등학교 교사의 ‘역차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지원들이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만 향한다는 의견은, 그 지원이 남한 학생들에게서 빼앗은 인적, 물적 자원에서 나온다는 발상과 맞닿아있다. 지원과 혜택이 쟁탈의 결과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의 역차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을 경험한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비해 혼자 거주하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이 크게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정 내의 불화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남한사회 부적응,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학교 밖으로 밀려나며 일탈과 비행문화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초기에 정밀한 정신건강 진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적응 교육에 힘써야하며,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 사회 복지사, 심리상담사를 양성하여 정서적 지지체계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강구섭 (2012).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22(1), 45-69
- 고상숙 (2013). 수학 학습 성취도에서 나타난 다문화, 탈북,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부진 특성. **학습장애연구**, 10(2): 1-26.
- 김경미 (2020). 탈북 청소년의 학습특성에 대한 이해와 학습전략 방향의 과제. **평화통일연구**, 1(1): 97-120
- 김길자 (1995). 우리나라 석·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대웅, 이순형 (2017).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청소년학연구**, 24(7), 111-140
- 김미숙 (2005). 북한이탈학생의 남한학교 다니기. **교육사회학연구**, 15(2), 23-44
- 김승일 (2010).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문화적응과 무용수업 적용효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0), 1-18.
- 김애진, 정원철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 **학교사회복지**, 21(0), 217-242.
- 김연희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영향의 경로구조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1), 33-65
- 김정희 (2013).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한 논의 -독일 바이에른 주의 학교, 박물관, 사회적 기업 교육 사례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4), 71-86

- 김종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 김지수, 서경혜 (2019). 탈북학생이 남한학교의 학습과정에서 겪는 주변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연구논총**, 40(3), 131-160.
- 김현경 (2014).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특성 및 화학 문항 분석. **대한화학회지**, 58(3), 303 - 312.
- 김현철, 박혜랑 (2018).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청소년의 과목별 학업성취 변화양상과 지원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195-215
- 남미연, 오현주, 최광선(2020).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 부적응 원인 분석-한·중 초등 수학 교육과정 비교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2), 21-55
-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8.
- 노은희, 오인수 (2017).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9(2), 113-151.
- 박성수 (2018).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4), 53-72
- 박영숙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2), 144-154.
- 박영숙 (2018).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학교생활 적응경험. **스트레스연구**, 26(3), 149-158.
- 박윤숙 (2009).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제11차 아시아 교정포럼 학술대회, 31-47.
- 백순근(2013). 교육개발 2013년 9월 통권 185호. [KEDI] 교육개발, (), 0-0.
- 백인옥 (2020). 탈북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해결방안 연구. **통일교육**

연구, 17(1): 53-80

- 백인옥 (2019). 탈북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해결방안 연구: -대전·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영민 (2010). 북한이탈학생 지도교사의 역할인식 제고 방안. **초등도덕교육**, 32(0), 65-94.
- 송진영, 배미경 (2015). 탈북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적응 의미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2), 219-248.
- 신미영, 이병수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비교를 중심으로-. **담론201**, 17(2), 63-93.
- 심양섭,& 김현주 (2015).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북한학보**, 40(1), 36-66.
- 아영아 (2019).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6(5), 159-182.
- 안경진, 한인숙, 김혜숙 (2015). 불평등 제시 방식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133-158.
- 양영은(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 연보라, 김경근 (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7(1): 1-30
- 연보라, 김홍찬 (2012). 새터민 청소년의 수학학습 실태 및 적응 요인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5(3), 467-486.
- 오인수, 노은희 (2017).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에 따른 탈북 학생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2017(-), 1-4.

- 윤상석 (2013).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65-83
- 윤석주 (2017). 북한배경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방식에 대한 질적 연구. **초등교육연구**, 30(2), 57-80.
-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이기돈, 이지현 (2016). 두 탈북 고등학생의 남북한 수학수업 경험에 대한 인터뷰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9(2), 197-215
- 이기영 외 (2014).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정책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NKRF] 연구총서**, 1-126
- 이병환, 강대구 (201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0(3), 125-148
- 이부미 (201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3-57.
- 이수연(Soo Yeon Lee)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 이자형(2017). 교사들의 시선에서 본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4(3), 109-138
- 이자형(201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특성 분석: 부산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5), 245-274
- 이정현 (2016). 북한 이탈 학생의 수학에서 정의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화 (2011). 통합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독일 통합교육 운영 사

- 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8(1), 137-158
- 이하섭 (2013). 경찰활동을 통한 북한 이탈 청소년 관리 방안. 북한학보, 38(2), 147-183.
- 이향규 (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7(12), 1-17.
- 정순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남한 청소년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22, 301-320.
- 정영선, 이승연 (2020).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719-749
- 정재경, 강민주. (2019).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및 친구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4), 485-498.
- 정진주, 손다정, 김효선, 홍원표 (2016). 탈북 학생들의 고등학교와 그 이후 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능동적 노력과 구조적 제약의 상호작용 -. 비교교육연구, 26(5): 65-91
- 조민희 (2019). 동독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정책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4(4), 47-65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7), 33-57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조윤동, 강은주, 고호경 (2013).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 급별 성취 특성 분석. 학교수학, 15(1), 179-199
- 조윤동, 강은주, 고호경 (2013).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 통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차별기능문항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3(2), 75-94
- 좌동훈, 이민영, 지소연 (2016).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63
- 남북하나재단 (2019).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NKRF] 실태조사, (), 0-0.
- 강철환, 「[Why?] 자유를 찾아나선 그들… 탈북자나 새터민이냐」, <조선일보>, 2007.05.0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04/2007050400897.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04/2007050400897.html))
- 김진호, 「[신년여론조사] “공정과 안전”…2020 한국사회 핵심 가치」, <KBS NEWS>, 2020.01.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54335>)
-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의 목소리 들어 정책으로 실현한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3.2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095>)
- 대한민국 통일부, 「안녕하세요, 탈북자 출신 1호 대한민국 변호사 이영현입니다.」,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20.11.15.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66127840>)

# **ABSTRACT**

## **A Literature Review on the Problem of School Maladjustment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reum Ha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ion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Since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as the propor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ur society has increased, various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have emerged as important social and educational issue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2000s, reaching 2,000 to 3,000 per year between 2003 and 2011, but gradually decreasing to 1,300 per year since 2012.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Ministry's data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 total of 33,658 people have arrived in South Korea by June 2020 (provisional). Among them, 2,531 North Korean defectors are atten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while 1,490 or 59 percent are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decreasing, but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 year by year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umber has remained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year.

As a policy to support stu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government provided tuition and provided educational support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3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providing expenses for the operation of schools that provid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general debate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item to help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njoy a faithful learning experience at school, but the school is suffering from maladjustment due to school interruption, poor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In response, this study sought to prepare measures for positive school adapt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nd suggest future policies and research directions by examining studies related to the problem of school mal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school maladjustment for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cadem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suspens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studies,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deviant behavior.